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총평(20분)

- 2023.8.24.(목) 16:00, 반기문평화기념관 -

■ 위로와 격려의 말씀

사랑하는 제3기 기후환경리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자고 하니,
많은 보람도 느끼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큼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하지만,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기후문제의 현장에서 또다시 헤어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3개월 동안 활동해 온 결과를 들어보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환경의 현실이
아직은 암담하고 답답한 부분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기후환경리더들이 있어
희망이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학업과 함께 기후환경리더로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뜻에서 힘차게 박수 한 번 쳐봅시다.

■ 우리 모두의 다짐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한 곳입니다.
물론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고,
이곳, ‘반기문평화기념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리더들의 활동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서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외교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늘 고민하였고, 그 결과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파리기후변화 협약의 체결과 발효,
그리고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강화 등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저로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는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제 사명을 다 완수했는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더욱 더 헌신하고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고,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리더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간 100명의 기후환경리더들이
기후문제에 당당히 맞서서 최선을 다해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와 토론을 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는 것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대표로 7명의 제안을 들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매우 훌륭했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모습에서
희망과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1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훌륭한 제안들을 꼭 대학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실행시키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신념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결코 소홀치 않겠습니다.

■ 기후위기

지금은 엄청난 기후 상실의 순간입니다.

저는 작년 5월, 기후환경리더 1기 개강식에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이 아니라
지구가열화, Global Heating”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난 7월,
“이제는 지구가 끓는 시대, Global Boiling”
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름의 폭염으로 지구촌 80억 명의 81%,
65억 명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 인류가 만든 화석 문명이 기후 생태계를
교란시킨데서 생겨난 총돌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지난 7월이 역대 가장 무더운 달로,
지구 평균 기온이 16.95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가까이 오른 것이고,
향후 5년 이내에 섭씨 1.5도가 완전히 뚫릴 가능성이
66%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WMO의 경고대로 간다면,
인류 스스로 초래한 기후붕괴에 의하여
금세기 내에 생물종의 70%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6차 대멸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정말로 경악스럽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 대학, 그리고 기후환경리더의 역할

이제, 여러분이 속한 대학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기후붕괴에 대한 대학의 긴급 조치가
얼마나 미흡한니까?

대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탄소가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소문명이 야기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배출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한파와 폭염,
그리고 강력한 폭풍 전선에
우리사회가 제대로 손쓸 수 없게 된 데에는
우리 대학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위협을 목적에 둔 우리는
더 나은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학이 기후붕괴에
진심으로 대비해야 하는 각성과 행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인 지성의 요람이고,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시작만 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시스템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업이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이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탈탄소경제에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었던 제안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안한 것은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면 긍정적인 기후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든 대학이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 쪽으로
초점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정청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논쟁하고,
다방면으로 상의하고, 공정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은 3개월간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동료들의 다양한 제안을 접하며 지식과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쌓아 올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성공한다는 신뢰는
대학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과 확실한 아이디어,
그리고 대학생의 열정과 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겠다는 용기입니다.”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계속하고자 하는 용기,

기후환경리더인 여러분이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생존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이나 하고 눈에 띄지 말고

문제에 휩쓸리지 말자’

‘한번 해보니 역시 쉬운 일이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는가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런 생각들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가까이 상승한 세상일 것입니다.

대학의 기후 운동은 여러분 개인의
사익(私益)을 위하여 호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당당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받은 수료증이 그 당당함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기후환경리더 여러분,

대학에 기후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후해결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립으로 사시겠습니까.

중립으로 사는 것은 기후 파괴에 기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오는 부정적인 것은 단지 1%일 뿐이고
나머지 99%는 곳곳에서 보내주는 지지와 응원일
겁니다.

■ 당부의 말씀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내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가능하게 보인다.”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겠다고 작심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 세계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창의적이고,

지혜롭고 진취적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와있습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의 정치지도자를 향해,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현 세대에게 경고했을 때,
툰베리는 겨우 16세 소녀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료식을 통해 기후환경리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간 투자, 용기와 끈기, 노력 없이 이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대학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학의 탄소중립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기후붕괴에 대한 대학의 침묵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단호하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기후환경리더 수료자로서 더 과감히 전략을 짜고
더 당당하게 추진해서 단계별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대학에는 그 대학을 변화시킬
기후환경리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기후환경리더임을 증명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지하고 대담한 리더십에 놀라고,
그리하여 친환경적으로 바뀌는 대학의 모습에
놀랄 수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인류가 함께 가야 할
대장정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동료들이 함께 도우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기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리더는 멈출 수 없고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용기있는 기후행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Net-Zero에 기여할 확실한 성과와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후환경리더 활동을 거듭 치하하면서,
미래의 여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